

“실수도 잘못도 아냐 괜찮아. 네가 생각하는 걸 만들어봐”

북유럽 작가들과 함께한 광주시립미술관 여름 미술 캠프

지난 12일 오후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만난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생과 지역 대학생 40여명은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이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미술캠프에 참가한 이들은 이날 주어진 현옷을 가위와 칼로 자르고, 손으로 찢어 가면서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정해진 결과물은 없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원하는 것을 만들면 됐다.

조별로 둘러앉은 학생들은 현옷으로 실을 만든 뒤 손으로 옷감 형태의 천을 직조하기도 했고, 각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옷을 리폼해서 미술캠프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입혀보기도 했다. 어떤 학생들은 직접 만든 다양한 무늬의 옷감으로 주어진 자전거를 장식하기도 했다.

은 북유럽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한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다. 경쟁보다는 주변 친구와 이웃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성, 이론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경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캠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에서 온 작가, 디자이너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들이 수업 내내 강조한 것은 ‘괜찮아’ ‘훌륭해’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와~’ 등의 칭찬과 감탄이었다. 실수를 통해서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가 실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했다. 또 “이렇게 만들어”가 아닌 “네가 하고 생각하는 걸 만들어봐”라고 끊임없이 강조했다.

“디자인은 진열해 놓고 보는 관상용품

버려진 옷감·나무가지로 옷 만들고 정원도 가꾸 어린이갤러리·중외공원에 전시해 관객들 만나

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생활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오는 것이 디자인이죠. ‘디자인은 생활이다’라는 것이 북유럽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다는 배움을 주고 싶었어요. 저희는 물론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고 만들어가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참가 학생들은 캠프 기간 못쓰는 나무를 가져와 깎고 정원을 가꾸는 데 사용할 상자를 만들었고, 대인시장에서 작가들을 만나 예술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또 나무를 활용해 나무 통로와 악기를

만들고, 악기에 어울리는 의상도 만들어 봤다. 특히 미술관 주변을 자신들이 만든 설치 작품들로 수놓은 학생들은 캠프 마지막날인 16일 부모님 등을 초대해 작업 발표회도 했다.

이번에 캠프 결과물들은 중외공원과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등에 설치돼 북유럽 디자인 전시 기간 관객들을 만나게 된다. 광주시립미술관 측은 이번 캠프를 계기로 해마다 결과물이 전시로 이어질 수 있는 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다.

덴마크의 가구 디자이너 미카엘(Michael)은 “한국은 처음인데 이렇게 자유롭게 진행되는 분위기의 교육이 많으면 한다”며 “재료를 보는 것과 직접 만지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료를 직접 만지면서 고유의 특성을 이해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난 12일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북유럽 작가들과 지역 학생들이 현옷을 가위와 칼로 자르고, 손으로 찢어 가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대 학생들 예술 협동조합 결성

전남대학교(총장 지병문) 예술대학의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협동조합을 잇따라 결성해 청년예술가들의 창작기회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16일 전남대에 따르면 최근 예술대학 음악학과와 미술학과 학생들이 중심으로 두 개의 협동조합이 결성됐다. 대학 내에 학생과 교직원 복지를 위한

생활협동조합이 운영되는 사례는 있어도,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 개척을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먼저 결성된 협동조합은 음악학과 학생들의 ‘뮤라제’다. ‘전남대 학생 협동조합 제1호’로 기록된 ‘뮤라제’는 청년 클래식 음악가들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일

음악학과 ‘뮤라제’·미술대 ‘AYO’ 사무공간 마련...학교도 적극 지원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결성됐다. ‘뮤직 미라클 제네레이션(Music Miracle Generation)’의 한 글자씩을 따서 만든 이름에서 보듯 음악을 통해 기적을 창출한다는 취지에 공감한 6명이 참여했다. 성악과 피아노 전공자들로 구성된 ‘뮤라제’는 앞으로 다양한 클래식 콘텐츠를 기

획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1대1 멘토링 음악교육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어 출범한 협동조합은 미술대 학생들의 자생 조직인 ‘AYO(Art Young Opportunity /에이오)’. ‘AYO’는 전남대 미술학과 재학생 6명이 참여했다.

대학측은 우선 이들 협동조합의 사무공간을 중앙도서관 별관에 마련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업무 처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진도 윤림산방에서 진행한 그림 경매의 모습.

남도축제 현장서 그림 경매한다

전남문화재단, 토요일경매 순회경매 추진

전남문화예술재단이 그동안 진도 윤림산방에서 진행했던 토요일 경매를 지역 축제와 연계해 진행한다. 지역축제 활성화와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오는 29일에는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 열리는 목포 로데오 광장에서 야외 경매를 연다. 오는 10월에도 2015 나주국제농업박람회와 2015 순천나안민속문화축제, 11월에는 대한민국의향대전에서 순회경매를 추진한다.

앞서 지난 15일 무안연꽃축제에서 ‘남도예술은행 특별그림경매’를 열어 지역작가들의 작품 20점을 전시했다.

지역 축제에서 선보이는 순회 그림 경매는 관광객에게 예향 전남의 가치를 알리고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설이 있는 그림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 미술인들의 기증작품(그림 합죽선, 소품용 작품 등)과 남도예술

은행 소장작품(남도의 사계 관련 작품) 20여점씩 출품되며 경매시작가는 최저 10만원대부터 최고 44만원대다.

한편 남도예술은행은 지난 200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됐다. 지난 2006년 8월부터 진도 윤림산방에서 매주 토요일 11시 상설토요일경매(470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지역작가 홍보 및 그림경매 활성화를 위해 기관 연계 순회전시·특별 그림경매(호남현대 목포 등)도 추진했다.

이방수 문화사업팀장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매년 2개 이상의 축제를 열고 있는 등 전남에서만 약 82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며 “지역 축제를 통해 예향 남도의 가치를 알리고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색적인 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61-280-582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생오지문예창작대학’ 2학기 수강생 모집

빛고을아트스페이스서 진행 문순태·윤삼현씨 등 강사로

광주에서 진행되는 ‘생오지문예창작대학’ 2학기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생오지문예창작대학’ 강의는 지난 1월에 답양의 (재)생오지문예창작촌(이사장 문순태)과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의 MOU체결에 따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창작, 소설창작, 소설창작등단, 수필창작, 글쓰기종합 등 5개 과목으로 나눠 오는 9월 12일부터 12월 6일

까지 매주 주말에 운영된다.

9월 5일은 2학기 개강특강으로 ‘인문학 시대의 감성’이란 주제로 문순태 이사장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교수진은 소설에 문순태·은미희·심영의·장마리씨, 시는 박순원·김성철씨, 글쓰기종합은 윤삼현씨, 수필반은 오덕렬씨가 각각 맡는다.

소설창작등단반은 15명, 그 외 4개 과목은 각각 30명을 모집한다. 글쓰기에 관심있는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소설창작등단반은 작품(단편소설 1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한 자로 제한한다. 문의 061-381-240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현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인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달만 예식!!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